

## 학습과 소통의 관점에서 본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구: 현황과 가능성

이선경<sup>1</sup> · 김남수<sup>2,\*</sup> · 김찬국<sup>3</sup> · 장미정<sup>4</sup> · 주형선<sup>1</sup> · 권혜선<sup>3</sup>

<sup>1</sup>청주교육대학교 · <sup>2</sup>대림중학교 · <sup>3</sup>서울대학교 · <sup>4</sup>환경교육센터

### Pursuing Sustainability in Private Sector Focused on Learning and Communication

Sun-Kyung Lee<sup>1</sup> · Nam-soo Kim<sup>2,\*</sup> · Chankook Kim<sup>3</sup> · Meejeong Jang<sup>4</sup> · Hyung Son Ju<sup>1</sup> · Hye-Seon Kwon<sup>3</sup>

<sup>1</sup>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up>2</sup>Daerim Middle School · <sup>3</sup>Seoul National University ·  
<sup>4</sup>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 ABSTRACT

The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s in private sector(businesses) carried out in Korea since UN DESD was launched in 2005.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nd case studies on those companies who have supposedly pursued sustainability management.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s showed that those in charge of writing sustainability reports in companies had an extremely high understanding of SD, but were not well aware of ESD. These businesses started to pursue sustainable management due to global trends and decisions of CEOs, and most of them had divisions that took charge of or are responsible for sustainable management. Sustainability issues that they mainly dealt with we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nergy and climate change, but other issues were being covered, too. Internal stakeholders got involved in projects related to sustainability from the planning stage. Learning on sustainable management was primarily made through information delivery, and education programs were usually conducted for staff members and executives. Those who cooperated on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were mostly local communities, universities, etc. They had few ESD programs that they directly developed and carried out, and few cases of ESD-related cooperation; and in those few cases, their partners were often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Results of ESD case studies and questionnaire surveys showed that businesses dealt with various iss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diversified education programs were carried out inside these companies. Business themselves, therefore, need to be considered and researched in further detail as important targets of ESD as well as supporters or cooperation partners on ESD programme.

**Key words**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UN DESD, private sector, sustainability report

\* 이 연구는 20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 kluv701@gmail.com, Tel : +82-43-299-0873, Fax : +82-43-299-0758

## I. 서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국제이행계획 틀을 제안하고 있는 유네스코 자료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의 이해당사자”임을 강조하고 있다(UNESCO,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진술은 협력, 소통, 및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방, 국가, 지역 및 세계 각 수준에서 주체들과 집단들에게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각 수준에서 이해당사자는 정부(지역, 세계 차원에서는 정부간),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 민간 영역(private sector)의 구성원이며, 이들의 기능과 역할은 상호 보완적이다(UNESCO, 2005). 민간 영역(private sector)에는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한상진, 2009).<sup>1)</sup> 이들 중 전통적 비영리조직은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므로, 대개의 경우 비영리조직을 제외한 ‘기업’과 ‘민간 영역’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다.

오늘날 기업은 한 사회의 물질과 에너지의 이용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상품 생산과 유통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생활 전반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역이 타 영역을 지배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대변하는 개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라고 할 수 있다.

Bowen(1953)은 CSR을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의사 결정과 정책을 따라야 할 기

업의 의무”로 정의하였다. 또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Friedman(1962)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 하나로 속임수 없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하여 그 게임의 규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증대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 규정한 바 있다. 즉, 경제적 성과를 내 주는 것만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전주의 관점은 오늘날 가장 기본적인 기업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Wood(1991)가 지적한 바와 같이, CSR 개념의 핵심은 기업과 사회가 서로 구분되는 영역들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는 점에 있으며, 따라서 사회는 기업의 적절한 행동과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1)는 CSR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나은 사회와 더 깨끗한 환경에 기여하도록 하는 개념”으로서 기업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오늘날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에 거는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적 결속 및 환경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는 유럽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Europe)의 핵심 메시지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CSR에 관한 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과 CSR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입장이 파악된다. Ebner & Baumgartner(2006)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CSR을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기업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CSR로 보기도 하며, 흔히 브룬트란트 보고서라 부르는 Our Common Future(WCED, 1987)의 정의에 따른 지속가능한

1) 사회적 책임 기업이란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 사명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과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에 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두는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한상진, 2009 참고).

발전 개념이 제시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기둥 중 사회적 기둥을 CSR이라고 보는 관점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문서들(가령, 2005 UNDESD 실행 체계)은 CSR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한 주제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현재 기업의 CSR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는 많은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한 논의로 모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은 기업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남상민, 2009). 즉,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 과정을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통합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관계에서 공존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공유 및 합리적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강조된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은 기업이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의 규모 및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간의 대화 주체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주주, 종업원, 정부, 고객을 넘어서 지역사회, 일반 대중, 더 나아가 지구 전체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이상석과 김종성, 2007).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자신들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전략, 활동, 성과, 및 영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기업의 사회적 리더십을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1993년 불과 100개 미만의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2003년에는 약 1,300개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9년 Fortune 지가 선정하는 상위 250개 기업 중 77%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상민, 2009).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5,209개 기업이 기업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국내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 기업은 모두 82개 기업이다(지속가능경영원, 2009;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2009).<sup>2)</sup>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기업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은 기업이 다른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특히, 1) 기초 교육 증진, 2) 기존 교육과정의 재정향, 3) 대중 인식 증진, 4) 전문가 양성 등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수행될 때, 기업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UNESCO, 2004).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이선경 등(2005)은 “지속가능경영과 결합된 교육”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기업의 역할을 “특히, 학교나 사회의 여러 영역, 여러 수준의 네트워크나 연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주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수행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영역에서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혹은 책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2) 전 세계의 기업책임 관련 보고 통계는 <http://www.corporateregister.com/stats/> 참고 국내 기업의 경우 2009년까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자료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2009) <2009 지속가능경영 우수 사례>, 2010년 자료는 지속가능경영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결국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의 지속가능성 이슈와 과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하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UNESCO, 2009). 그러나 주요 기업들이 내리는 결정과 그 기업들이 따르는 경영 모델은 사회의 지속가능성 추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의 중요한 대상이자 주체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한 영역일 뿐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는 2005년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가 실행 전략(PCSD)’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었다(이선경 등, 2005). 이 연구에서는 당시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문헌 검토와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을 참고로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국제 시장에서 투자와 관련 지속가능성 지수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 하에서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경영 또는 사회책임경영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지속가능경영은 도입 단계이기는 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다른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활동은 관련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없고,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직원 경력 개발, 리더십, 퇴직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련하여 기업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영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이 시작된 후 이의 성과를 평가 및 모니터링하기 위하여(이선경 등, 2010), 국내 기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과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의 소통과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예비 진단, 설문 조사 및 사례 조사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예비 진단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어떤 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에 관한 문헌 조사와 연구진 내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헌 조사는 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 또는 이를 실제로 평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Huckle, 2006; UKNU, 2008; UNECE, 2006; UNESCO, 2009a; UNESCO, 2010; UNESCO Bangkok, 2007). 이들로부터 기업, 지속가능한 발전(혹은 지속가능한 경영) 그리고 교육, 이들 세 가지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결합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Scott & Gough(2003)가 제기한 바와 같이, 일방향의 정보 전달(information), 양방향의 강의 형식의 교육(education), 그리고 다자간의 대화와 논의를 의미하는 소통(communication)과 거버넌스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습(learning)의 형식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지속가능한 경영), 기업, 그리고 교육이 다

양하게 결합되었을 때 가능한 측면들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었다.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교육, 중요 이해당사자인 협력사와의 소통 혹은 협력 과정으로서 지속가능경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해당사자인 지역사회와 NGO 등과의 협력 및 소통 사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학습과 소통을 위한 기업들 간의 협의체와 네트워크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2006년 말에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이 제정되어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는 시민사회 조직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활동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제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 및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학습 활동도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 2. 설문 조사

### 가. 조사 대상

설문 조사는 국내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는 총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기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전반적인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양상 파악을 통해 향후 기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수행 및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과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각 기업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책임 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주요 설문 대상이 되었다.

### 나. 조사 내용과 방법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선경 외, 2005; Scott &

Gough, 2003)에서 사용된 내용과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예비 진단에서 탐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즉, 기업, 지속가능한 경영, 교육이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가능한 한 포함하였고, Scott & Gough(2003)가 강조한 정보, 교육, 소통의 양상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에 배경을 두고 있는 연구진들이 수차례 각 항목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설문에 포함될 수 있는 주제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도 기업의 언어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고, 내용 예시를 제시하는 등 설문의 타당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만들어진 설문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범주, 즉,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학습과 소통,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과정과 결합된 학습,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및 협력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설정하였다. 이 기본 범주에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범주를 추가하였으며, 각 범주에 따른 설문 항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식 범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학습과 소통 범주에는 지속가능한 경영 담당(또는 책임) 부서의 유무, 주력 지속가능성 이슈를 결정하는 과정, 대상에 따른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한 학습의 형식 등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범주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주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학습의 형식,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과정의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회적 책임활동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원 및 협력 범주에는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의 협력,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원, 협력기업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및 제공,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한 캠페인 지원 등의

표 1. 기업 대상 설문 의 내용

범주	설문
인식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학습과 소통	-지속가능한 경영 담당(혹은 책임) 부서 유무 -주력 지속가능성 이슈 결정 과정 -대상에 따른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한 학습의 형식: 정보 전달(information), 교육(education), 소통(communication)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주체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학습의 형식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과정의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및 협력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의 협력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지원 -협력 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제공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한 캠페인/공익 광고 지원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었다. 이들 중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범주의 문항은 응답자가 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설문 항목에 포함하지 못한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부록 참조).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학, 연구소, 학교, 시민사회단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에 배경을 두고 있는 전문가 8인과 연구진 6인과의 협의회를 실시하여 적합한 항목이 질문되고 있는지, 연구의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완성된 설문은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설문 대상 기업의 담당자들에게 설문 문항들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와 연구 목적 및 연구 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설문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각 기업에서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안내된 담당 부서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통하여 이메일주소를 입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문에 응답하지 않겠다고거나 현재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8개 기업)를 제외한 기업들에게 설문 요청메일을 보냈다. 총 3회에 걸쳐서 설문 안내 메일 발송과 통화를 실시하여 응답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의 경우, ‘교육’을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설문 참여 요청 메일의 제목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학습 현황’으로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 중 8개 기업의 경우 제공받은 이메일 주소로 설문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다. 따라서 설문요청이 이루어진 총 66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하여 빈도 분석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사례 조사

#### 가. 조사 과정

설문 조사가 기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과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의도하였다면, 사례 조사에서는 설문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지속가능한 경영 우수 사례집 등을 검토하였고, 신문 기사와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였다. 기업,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교육(학습과 소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다양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우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선정 준거를 만족하는 사례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사례들을 검토할 선정 준거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

성에 관한 문헌(Breiting, Mayer & Mogensen, 2005; UNESCO, 2005; UNESCO, 2009b)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인정 기준(이재영 등, 2010; German Commission for UNESCO, 2010)에서 사용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개발하였다. 그 결과, 내용의 통합성, 인식 증진, 역량 강화, 실행 및 참여, 성과와 효과,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등이 선정 준거로 정해졌다.<sup>3)</sup> 후보 사례 중에서 선정 준거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사례를 선택하여 주요 사례로 선정하였다.

### 나. 주요 검토 대상

지속가능한 경영의 한 축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혁신 역량을 매개로 하여 조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NPO/NGO 그리고 노동단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은 조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이영찬과 이승석, 2008).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의 과정으로 해석되며, 기업 전체 접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선정에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 우수 사례들과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속에서 교육과 학습의 관점이 부각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우수사례집>에 소개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아시아나 항공, SK 에너지, STX 엔진, LG 전자, LG 화학, 유한킴벌리, GS 칼텍스, 포스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2009).

- 지속가능경영원이 발간한 <2009 지속가능한 경영 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은 한국가스공사, SK 텔레콤, CJ, SK 에너지, 웅진, 금호아시아나, 홈플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등이다(지속가능경영원, 2009).
  - 2010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함께 <Collective Actions of UNGC Member Companies of Korea in Support for MDGs>를 발간했다(Global Compact Network Korea, 2010). 이 자료집은 외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내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LG 전자, 현대자동차 그룹, 웅진코웨이, 홈플러스 그룹, 문화방송, 기아자동차, SK 에너지, SK 텔레콤, 아시아나 항공, 유니베라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노동부와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사회적 기업 개요집>은 교육(11), 보건(9), 사회복지(52), 환경, 문화/예술/관광/운동(12), 보육(20), 간병 가사 지원(33), 기타(73)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서울/강원권 75개, 경인권 57개, 대전/충청권 29개, 광주/전라권 40개, 대구/경북권 15개, 부산/경남권 28개, 제주권 7개의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 있다(노동부·RISE 사회적기업연구원, 2009).
- 이들 후보 사례 중에서 최종적으로 9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논의를 통하여 사례의 의미 및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설문 조사 결과

3) **내용의 통합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쟁점을 두 가지 이상 함께 다루고 있을 것, **인식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지향하고 있을 것,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비판적 사고, 분석적 질문 기능, 미래에 대한 비전, 시스템적 사고, 전통과 혁신의 조화, 문제해결력 증진 등), **실행 및 참여:** 집단 및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구체적 실행 및 이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고 있을 것, **성과와 효과:** 집단 및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최소한 둘 이상의 이해당사자들을 연결할 것.

설문 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대상은 총 21개 기업으로 설문 작성자의 과반수(52.4%)가 해당 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며, 대부분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이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다. 이들이 해당 업무를 맡은 지 1~2년 된 것(56.4%)으로 보고되었다.

**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용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1.0%가 ‘잘 알고 있다’, 14.3%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4.3%가 ‘잘 알고 있다’, 23.8%가 ‘조금 알고 있다’, 23.8%가 ‘용어만 들어 보았다’, 38.1%가 ‘전혀 알지 못 한다’고 응답하여 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용어나 개념을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학습과 소통**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련하여 응답 기업의 90.0%(18명)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로부터 국내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들의 다수가 지속가능한 경영 혹은 책임 부서를 두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성 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한 모든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 건강과 같은 환경 관련 이슈가 선두 그룹을 차지하고 (90.5~81.0%), 인권>양성평등>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적 다양성, 평생학습 등의 사회적 이슈의 순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았다

(81.0~52.4%). 그 다음으로는 자연자원>생물다양성>갈등 해결>지속가능한 도시/촌락>빈곤 완화>민주시민 순으로 답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주제들을 거의 다루고 있으나, 평화를 다루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추세’와 ‘CEO의 판단’이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71.4%(15명)였다. 이는 다수의 기업에서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EO가 먼저 주장했고 그 동력은 국제적인 추세라 생각한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수립되고 확산되면서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 “글로벌트렌드와 정부 녹색 정책 등에 근거하여 CEO가 결정하고 추진하게 됨”이라고 보충 응답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정부 정책과 사원들의 의견 등이 추진 동기라고 답한 기업은 각각 19.0%와 9.5%로 낮아서, 기업의 경영 방향이 사원들의 의견으로 시작되어 결정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에 내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단계를 질문한 결과, 과반수 기업(57.1%)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내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또한 사업의 주제를 결정하는 단계보다 이후 주제를 구현하는 계획 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의 의사 소통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표 2. 내부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단계

항목	빈도	비율(%)
사업의 결정	3	14.3
사업의 계획	12	57.1
사업의 실행	5	23.8
사업의 평가	1	4.8
계	21	100

표 3. 지속가능한 경영 관련 학습과 소통

항목	임원	사원	주주	협력업체	빈도
정보 전달(사내 인트라넷, 소식지, 홈페이지)	20	21	11	12	21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등)	13	16	0	3	17
다자간 회의(워크숍, 포럼, 총회 등)	11	12	1	7	13
기타	3	3	1	1	4
계	47	52	13	23	55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학습과 소통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대상에 따라 학습과 소통의 형식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트라넷과 소식지 등을 통한 정보 전달 형식이 우세하며, 교육과 다자간 회의 형식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학습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빈도수는 사원 대상>임원>협력업체>주주 순으로 나타나 기업 내부의 학습과 소통의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한 차례라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개 기업만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콤팩트 가입 후 글로벌콤팩트 보고서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대체한 사례로 해석된다. 이후 글로벌콤팩트 확산 여부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형식이나 기준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주체는 응답 기업 중 과반수 이상(66.7%)이 전담 부서에서, 일부 기업은 일시적으로 구성된 팀이 작성하거나 외부 전문 평가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략기획팀, 고객만족센터, 사회 공헌팀, SM(지속가능한 경영) 추진 사무국, 지속가능경영사무국 등이다. 일부 기업

표 4.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 작성 주체

항목	빈도	비율 (%)
전담부서	14	66.7
일시적으로 구성된 팀	5	23.8
개인	0	0.0
외부전문평가기관	2	9.5
기타	0	0.0
계	21	100

은 전담 부서가 있는 동시에 보고서 발간 시 3개월 정도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거나 지속가능경영사무국에서 주관하되, 협의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성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과정은 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52.3%)의 기업에서 이를 위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학습’과 ‘위탁 교육’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표 5).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속가능경영 토론회를 주최하여 이슈별(ISO26000 기준 총 6개 이슈)로 관계자 및 희망자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위한 T/F구성을 통해 보고서 발간 항목을 구체화”한 사례가 있으며,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거나 “지속가능경영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보고서 작성 태스크 포스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외부 기관의

표 5.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학습

항목	빈도	비율 (%)
개인적 학습	8	38.1
자체 워크숍	11	52.4
위탁 교육	8	38.1
기타	2	9.5
계	29	138.1

\* 복수 응답이므로 비율의 계는 100%를 넘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인과 집단 차원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다.

**라.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및 협력**

응답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프로젝트의 협력 대상은 지역사회(70.6%), 대학(41.2%), 시민단체(35.3%), 지방정부(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 구체적 내용은 “서울대학교에서 지속가능경영 기업 사례 특강 실시”, “Life’s Green Class”, “인권 재단 주관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 “지속가능경영 관련 컨퍼런스, 협의체 참여”, “초·중고생 대상 청렴 윤리만화 제작 보급” 등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프로젝트”라고 상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기업은 전체 21개 기업 중 8개(38.1%)였으며,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배경 및 자사 대응 현황, 지속가능성 관련 사이버 프로그램, 사회적 책임 경영 e-러닝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협력한 대상은 초·중등학교>대학교>시민단체>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10개 기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6).

기업협력업체의 교육과 관련하여, 응답한 기업 중 10개 기업(47.6%)이 기업협력업체 사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1개 기업 중 6개 기업(28.6%)만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답하여,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모

표 6. 지속가능발전교육 협력 대상

항목	빈도	비율 (%)
초 중등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지원	4	36.4
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지원	3	27.3
시민 사회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지원	3	27.3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지원	2	18.2
기타	4	36.4
계	11	100
무응답	10	

든 기업들은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경제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 대한 응답도 있었으나(각각 84.6%, 76.9%),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성과가 더 가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의 내용을 보면, 환경적 측면의 성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 등의 성과들이 대부분이었고, 사회적 측면의 성과로는 사회적 책임 혹은 공헌 활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으로 고용 안정에 기여하거나 균형적인 수익성 및 지급여력 비율의 강화 등을 기술한 사례가 있다. 교육적 측면으로 임직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거나 임직원의 역량 강화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기술한 성과들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의 성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해석의 어려움이 있었다.

**2. 사례 조사 결과**

사례 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두 9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각 사례의 특징, 개요 그리고 선정 준거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측면들은 매

표 7. 기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요 사례의 특징

사례	개요	선정준거
글로벌 콤팩트 보고서 작성을 통한 학습-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기업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인 글로벌 콤팩트의 확산에 기여함, 글로벌 콤팩트 보고서 작성 관련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	내용의 통합성 실행과 참여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평생학습체계-유한김벌리	기업의 실행공동체 학습을 위한 경영 방식, 환경 경영, 윤리 경영, 기업 혁신의 바탕이 된 평생 학습 체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환경경영협력-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환경 경영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실행과 참여 적용을 통한 학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성과
협력업체 임직원 지원-SK 상생아카데미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계로서 수평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다자간 쌍방향 소통 통한 사회 보고-BAT 코리아	다자간 쌍방향의 소통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보고를 준비하고 이행함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환경 재난 지역 어린이 교육-웅진코웨이	환경 재난 지역 어린이들의 치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파트너십
전통 문화 보존-샘표 된장캠페인	전통 음식인 된장을 소재로 된장 만들기 교육과 유기농사를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하고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전통과 혁신
사회적 기업가 양성-2008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정부, 기업, 공익 재단, 대학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진행함.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홍살림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함. 학습과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음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파트너십

우 다양하다. 각 사례에 대한 간략한 기술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글로벌콤팩트 보고서 작성을 통한 학습: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sup>4)</sup>

유엔글로벌콤팩트(Unted Nations Global Compact, 이하 UNGC)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 기업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단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기여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들이다.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UNGC 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하 COP)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정기적으로 UNGC COP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약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 워크숍은 주로 글로벌콤팩트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작성 연습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콤팩트가 지향하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강화했다. 많은 기업

4) 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홈페이지 COP 기록 및 관계자와의 서면 인터뷰 참고

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하여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은 것에 비해 그 활동 내용은 매우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권순원, 2009). 이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 시민이 지향해야 할 기본 원칙들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인 글로벌콤팩트의 확산은 중요하다. 2010년 현재 국내 50대 기업 중 글로벌콤팩트 미가입 기업이 28개로서 참여 정도가 낮은 편이므로, 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산하는 동시에 이미 가입한 기업들의 반성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COP 워크숍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 2. 평생학습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경영 방식을 통한 혁신: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사는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활동, 사원들의 평생 학습 체계, 사람 중심 경영,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례 연구의 모든 영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다. 유한킴벌리사가 혁신 경영, 환경 경영, 사회 책임 경영 등의 측면에서 타 기업 활동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바탕에는 ‘뉴패러다임’이 있다. 뉴패러다임이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경영 모델로서 지식 경영 혹은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 학습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낳았다.

기업이 혁신을 위하여 실행 공동체 학습을 원한다면 단지 지식 공유 네트워크를 마련하거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학습할 여유 시간을 구조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 내 평생 학습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학습 시간 확보라는 구조적 장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유한킴벌리(2010)에서 보고하는 이 사례는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한 경영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들의 재생산 시간을 보장해야 기업의 생

산성 향상과 결합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 가능한 경영 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례 3. 환경경영협력: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2006년 말 거래하던 총 4,643개의 부품 협력사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협력사와의 그린 파트너십을 추진하였다. 프로젝트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사업(SCEP)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환경 경영 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하였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1차 협력사에 SCEP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이들 1차 협력사들이 2차 협력사의 환경 경영을 지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의 특성에 따라 현황에 맞는 차별적 환경경영 요소에 집중하는 18개의 모듈을 개발하여 지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하였다(현대자동차, 2007).

중소기업들은 사원들의 평생 학습이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 사례는 대기업이 정부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서 환경 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또 다른 협력 체계를 구현하고 실행했다는 점과 이러한 협력 관계가 여러 차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사례 4. 협력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SK상생아카데미*

SK 그룹은 협력업체 사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하는 상생아카데미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협력업체 CEO 대상의 ‘상생 CEO 세미나’, 협력사 핵심 부장 차장 대상의 ‘상생 MDP’, 협력사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인 ‘상생 e-learning’으로 구성

5) “인권경영 없이는 없다” <한겨레 21> 제 826호 참고.

되어 있다. 지난 5년 동안 상생 MDP 과정은 1천 8백여 명이 수료했고, 온라인 과정에는 9만 8천명이 참여해 CEO 세미나를 포함해 3개 전 과정에서 10만여 명의 협력사 임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sup>6)</sup> 중소기업에게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인 협력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려 한 점은 의미가 있다. 4년여 동안 10만 여명의 직장인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했다는 점 또한 쉽지 않은 성취이다. 다만, 다루는 주제가 경영학이나 실무 관련 기술과 지식에 다소 치우친 감이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 환경, 평화,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을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사례 5. 사회와의 대화: BAT코리아의 사회보고 과정

BAT 코리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핵심 전략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이다. 이 과정은 “결정-전달-방어(decide-deliver-defend)”가 아니라 “경청-결정-전달(listen-decide-deliver)”의 과정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보건전문가, 학계, 정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가 기업의 의사 결정의 토대가 되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생산적인 결과물을 제시하거나 바람직한 사업 방향을 제안하였다(BAT코리아, 2007~2008).

기업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방식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나 대규모의 설문 조사인 경우보다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쌍방향의 소통이라면 더욱 의미가 깊으며,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된다면 진일보된 것이다. BAT 코리아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정은 대화를 통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의제를 설정하며, 문제를 규정한 뒤 이후 계획을 설정하며 이러한 계획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새로운 실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러한 방식의 의사 결정 과정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학습의 모습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사례 6.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웅진코웨이와 환경운동연합

웅진 코웨이는 환경운동연합 산하의 환경교육센터와 함께 “동화 속 주인공들과 떠나는 환경여행: 환경아 다시 놀자”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하여 생겨난 생태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태안지역의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환경교육센터, 2008). 즉, 현재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가 낳은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과정들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된 기능과 역량으로 거론되지 않으나, 정신적인 상처를 극복하는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사례에서 기업의 역할은 단지 시민사회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금전적, 물질적 자원들을 지원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기업의 구성원이 프로그램 진행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 사례 7.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및 발전: (주)샘표의 된장학교

2009년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한 (주)샘표 식품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된장을 먹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된장을 알리고 된장의 맛을 즐기게 함으로써 우리 전통음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2010). 이 캠페인은 콩을 심어 매주를 만드는 전 과정을 온 가족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샘표 유기농 콩농장’, ‘찾아가는 된장학교’, ‘샘표된장요리교실’ 등 된장에 대해 알고 즐길

6) 한국경제신문 2010년 8월 26일자 참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sup>7)</sup>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한국 고유의 식문화의 핵심인 된장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의 보존과 안전한 먹을거리 등에 대해서 생각하고 체험 학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습득하였다.

이 사례는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인 된장을 중심으로 음식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한편, 장류까지도 손쉽게 사 먹게 되면서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식탁에 오르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캠페인이다. 학습 과정과 관련해서 농사와 조리 등 체험 학습 위주의 활동 또한 의미가 있다.

#### 사례 8. 2008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노동부, 함께 일하는 재단, SK 등은 2008년부터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실시하였다(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총괄사무국, 2009). 이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젝트로서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는 물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과정 사업 운영자와 강사 등의 전문 인력들과 집단에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보다 한발 나아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익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축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거나 이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전국 규모로 마련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매우 깊다. 이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진행뿐 아니라 필수 커리큘럼과 연구 자료의 기본 인프라를 마련하여 사회적 기업가 양

성을 위한 토대가 되었고 이러한 추진 과정 전체가 협력적 체계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사례 9. 학습과 혁신의 과정으로 발전한 사회적 기업: 흙살림

흙살림은 현장 농민과 과학자들이 개발한 퇴비와 미생물 등 유기농 자재를 보급하는 연구소로 출발하여 2010년 현재 60여 명의 직원과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사회적 기업이자 성공적인 농촌형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한다. 사단법인 흙살림은 교육 및 출판, 농업 경영 컨설팅, 친환경 인증 사업 및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주식회사 흙살림은 친환경농업 재배 기술 연구, 분석, 개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제반 사업들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과학자, 농민,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에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협력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례는 기업 전체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농업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식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며, 농촌 사회와 농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집단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IV. 결론 및 제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업과 관련짓는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와 시민사회단체 혹은 지역 사회 등의 교육 지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와 사례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비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여타의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들을 거의

7) 생표 된장학교 홈페이지 참조

8) 흙살림 홈페이지 참조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학습과 소통의 과정을 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이미 잘 알려진 사례들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친 경향이 있다. 각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소통 과정에서 어떤 기능과 역량들이 강조되고 있는지,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경영층과 관리자, 실무담당자, 일반사원과 같이 대상별로 학습과 소통 현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보고한 사회적 공헌 혹은 책임 활동 또한 양적으로 질적으로 증가하였다. 기업들이 보고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활동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혹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다루기 위한 부서가 만들어지고, 이를 위한 학습의 기회들이 마련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들이 기업의 경영 방식이나 기업 문화와 통합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속가능성 보고서나 글로벌 콤팩트 보고서 작성이 기업의 홍보 수단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례가 아직은 많다는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들 속에는 특정 사업의 구체적인 과정들이나 절차에 대한 보고가 생략된 경우가 많다. 특히 해결되지 못한 점, 갈등을 빚었던 점, 해법을 실행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들이 공개하는 활동보고서들은 대외적으로 주요 이해당사자인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상정되기 때문인데, 각종 보고서가 소통의 수단이며, 보고서의 작성 과정 자체는 기업 내적으로 중요한 반성적 학습이라는 인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기업에서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들이나, 이후 진행되는 학습

과 소통들은 주로 “국제적인 추세” 등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상황을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여 위험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창발적으로 사회에 이슈를 제기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혁신적인 학습과 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에게는 소비자 집단의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사회는 지속가능성의 추구 방향과 과정에 관한 학습과 논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추진하여, 기업이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2005년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과 노동부 그리고 시민 사회 등의 파트너십 형태로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대학의 정규 교과목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서 결합된 학습과 소통에 대한 연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2010). 제 19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 경실련.
2. 권순원 (2009). 한국기업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현황과 과제: 노동기준을 중심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노동기준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관한 국제 세미나 자료집.
3. 남상민 (2009).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한 기업 지속가능가치평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9(10), 339-348.
4. 노동부·RISE 사회적기업연구원 (2009). 사회적기업 개요집, [www.rise.or.kr/ebook/geyo09/viewer.html](http://www.rise.or.kr/ebook/geyo09/viewer.html). e-book
5.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총괄사무국 (2009). 2008년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성과보고서.

6. 유한킴벌리 (2010). **사회책임경영보고서**.
7. 이상석, 김종성(2007).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연구: POSCO 광양제철소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 학회지**, **10(4)**, 444-460.
8. 이선경, 김남수, 김찬국, 장미정, 주형선, 권혜선 (2010).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DES D) 중간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9. 이선경, 이재영, 이순철, 이유진, 민경석, 심숙경, 김남수, 하경환 (2005). **유엔 지속가능 발전교육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10. 이영찬, 이승석 (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혁신 역량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접근, **사회적기업연구**, **1(1)**, 93-117.
11. 이재영, 원종빈, 정원영, 정수정, 조찬희 (2010).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 운영 방안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2. 지속가능경영원 (2009). **한권으로 보는 2009 지속가능경영 사례집**.
13.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2009).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집**, KBCSD.
14. 한상진 (2009). 사회적 기업의 복합이해당사자 구조와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ECO**, **13(1)**, 267-298.
15. 현대자동차 (2007).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지속가능경영원 발표 자료**.
16. 환경교육센터 (2008). **웅진코웨이와 함께 하는 태안지역사업 보고서**, 미발표.
17. BAT코리아 (2008). **BAT: 사회보고서 2007 ~ 2008**.
18. Bowen, H. R. (1953).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 Row.
19. Breiting, S., Mayer, M., & Mogensen, F. (2005). *Quality Criteria for ESD-Schools: Guidelines to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Vienna, Austria.
2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1). *Green Paper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2001), Brussels.com(2001)366final.
21. Ebner, D. & Baumgartner, R.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ilit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Responsibility Research Conference 2006*, 4th~5th September, Dublin.
22.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3.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2010). *Collective Actions of UNGC Member Companies of Korea in Support for MDGs*.
24. Huckle, J. (2006). *A UK Indicator of the Impact of Formal Learning on Knowledge and Awaren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ttp://john.huckle.org.uk>).
25. Scott, W. A. H. & Gough, S. R. (2003).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earning: Framing the Issues*, London/New York: RoutledgeFalmer.
26. UK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8). *ESD in the UK in 2008: A Survey of Action: 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27. UNECE (2006). *Indicators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CE.
28. UNESCO (2004). *Partnership Strategy between UNESCO and the Private Sector for th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29. UNESCO (2005).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 ~2014.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UNESCO.
30. UNESCO (2009a). *Workshop 10: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ESD in UNESCO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 ble Development*, UNESCO.
31. UNESCO (2009b). UN DESD *Global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GMEF)*, Operational Plan.
  32. UNESCO (2010). *DESD Global Monitoring and Evaluation: Phase II - Assessing ESD Experience during the DESD: An Expert Review on Process and Learning for ESD*, UNESCO.
  33. UNESCO Bangkok (2007). *Asia-Pacific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SD Indicators*, UNESCO Bangkok.
  34. Wood, D. J. (1991).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4), 691-718.
  35.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87) *Our Common Future*.
- <기타 자료>
36.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관계자와의 서면 인터뷰(2010. 11. 10~11. 16).
  37. 샘표 된장학교 홈페이지 <http://www.ijang.org>(최종방문일 2010.11.30).
  38. 지속가능경영원 홈페이지 <http://www.bisd.or.kr>(최종방문일 2010.11.30).
  39. 한국경제신문 2010년 8월 26일자.
  40. 휴살림 홈페이지 <http://www.heuk.or.kr>(최종방문일 2010.11.30.)
  41. SK상생아카데미 내부 통계 자료 및 관계자 서면인터뷰(2010. 10. 27~10. 28).

부록.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

1. 귀하께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가장 적합한 란에 √표 하십시오.
-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용어만 들어 보았다    전혀 알지 못한다

2. 귀하께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가장 적합한 란에 √표 하십시오.
-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용어만 들어 보았다    전혀 알지 못한다

3. 귀사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담당하는 부서 혹은 책임 부서가 있습니까?
- 있다 (부서명: \_\_\_\_\_ )  
 없다

4. 귀사에서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음 중에 골라 모두 √표 하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인권       평화       갈등 해결  
 민주시민    양성 평등    문화적 다양성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촌락  
 환경과 건강    빈곤 완화    평생학습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

5. 귀사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국제적인 추세    정부 정책    CEO의 판단  
 직원들의 의견    기타

6. 귀사에서 주력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의 결정, 실행, 평가 과정 중 어느 단계부터 내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였습니까?
- 사업의 결정       사업의 계획  
 사업의 실행       사업의 평가       기타

7. 귀사에서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련하여 어떤 형식의 학습과 소통이 있었는지 다음 표의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복수 응답 가능)

지속가능한 경영 관련 학습과 소통 유형	임원 대상	사원 대상	주주 대상	협력업체 대상
정보전달(사내 인터넷, 소식지, 홈페이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온라인, 오프라인강의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자간 회의(워크숍, 포럼, 총회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귀사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회적 책임 보고서  
 글로벌컴팩트 보고서  
 기타( \_\_\_\_\_ )

9. 귀사에서 발간한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의 작성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전담 부서       외부 전문 평가  
 일시적으로 구성된 팀    기타  
 개인

\*표시 항목에 대해 상술 바랍니다( \_\_\_\_\_ )

10.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어떤 형식의 학습이 이루어졌습니까?
- 개인적 학습       자체 워크숍  
 위탁 교육       기타

\*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 주제 등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_\_\_\_\_ )

11. 귀사에서 협력한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프로젝트가 있다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프로젝트 협력  
 시민단체와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프로젝트 협력  
 지방정부와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프로젝트 협력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프로젝트 협력  
 기타

\* 표시 항목에 대하여 프로젝트명과 주제 등 간략하게 기술 부탁드립니다. ( \_\_\_\_\_ )

12. 귀사에서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있다       없다

\* 있다면 프로그램 명칭과 내용 등 간략한 기술 부탁드립니다. ( \_\_\_\_\_ )

13. 귀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협력한 사례가 있다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 중등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지원  
 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지원  
 시민 사회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육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숍 지원  
 기타

\* 표시하신 항목에 대하여 주제와 내용 등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_\_\_\_\_ )

